

다산포럼



전성건
안동대학교 교수

코로나와 ‘기생충’

얼마 전 영화 ‘기생충’이 오스카(Oscar: 아카데미상의 다른 말)를 휩쓸었다. 작품상을 포함해 4관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짜파구리 연찬(宴饗)을 통해 기생충의 쾌거를 축하하고 기생충이 보여 준 사회의식에 공감하였다. 빈부의 차이는 경제의 차이이며 경제의 차이는 정치의 수준을 보여 준다. 기생충의 오스카를 마냥 축하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봉준호 감독의 어록도 화제가 됐다. “오스카는 국제영화제가 아니다. 그저 로컬일 뿐이다.” 미국의 패거리 문화를 비판했다고 할 수 있다. “자막이라는 1인칭의 장벽을 넘으면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다.” 영화 자체가 의사 소통을 위한 수단 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NGO칼럼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팀장

방사능 오염수와 도쿄 올림픽

년부터 1호기에 해수를 투입했다. 그다음날인 3월 13일부터는 3호기에도 해수가 투입되었지만, 결국 14일 후쿠시마 3호기가 폭발했다. 이후 후쿠시마 2호기와 4호기가 폭발했다.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날의 사고는 끝나지 않은 듯 하다.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지구와 생명들의 피해는 지속되고 있고, 녹아내린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하지 못한 채 방사능 오염수를 계속 쏟아내고 있다. 일본 정부는 급기야 120만톤에 달하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으로 무책임하게 방출하는 계획까지 추진 중이다. 더구나 일본은 이번 2020 도쿄 올림픽에 후쿠시마 현지에서 성화 봉송과 경기를 하고,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선수촌에 공급하려 하고 있다. 과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사고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한순밖에 나오지 않는다.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작년 8월이다. 당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현에서 공청회를 열고 오염수를 땅에 투입하는 방법, 바다로 내보내는 방법, 증기로 바꿔 공기 중으로 내보내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방사능 오염수를

자발적으로 타인과 거리를 두는 이른바 ‘자가 격리’를 하는 등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다.

자가 격리는 타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구속되는 것이 아니다. 자가 격리의 순수성은 타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을 격리시키는 데에서 생겨난다. 그렇다고 타인과의 접촉으로 인해 내가 감염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인 것도 아니다. 주체로서의 내가 바이러스 감염의 범위 내에 있었을 수도 있다는 자각 및 그에 따라 타인을 감염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에 그 순수성이 있는 것이다.

새로운 하늘과 땅이 열린 신천지이다. 길거리에 자동차가 다니지 않는다. 백화점과 가게 그리고 식당 등에 빼곡하게 모여 있던 사람들이 성지순례라도 떠난 것일까. 그리고 늘 그렇듯 미디어 정치가 시작되었다. 모든 죽음의 원인이 코로나가 되었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또한 코로나와 연계되었다. 공천과 위성정당 등은 코로나와 무슨 관계일까?

코로나는 천재(天災)인가? 인재(人災)인가? 천재는 하늘님의 심판으로, 인재는 정치적 심판으로 귀결된다. 알베르 카뮈의 페스트가 생각난다. 천재일 수도 인재일 수도 있겠지만, 종교적으로 정치

바다로 내보내는 방법이 가장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후쿠시마 어민들은 해양 방출은 어업에 타격이 크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과연 한국은 어떠한가? 우리나라도 경주 월성 핵발전소 인근 주민의 혈액과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핵발전소를 운영 중인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수년째 갑상샘암 소송을 진행 중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의 경우 일시에 많은 양을 보관하고 있어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 400여 개 핵발전소와 핵 재처리 시설에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은 이에 맞먹는 양이며 우리나라 역시 태평양에 방사성 물질을 버리고 있다.

한빛 핵발전소 4호기가 운전을 멈춘지 1020여 일 지났다. 2017년 5월 18일 계획 예방 정비를 시작한 한빛 4호기는 예정된 정비 기간인 올 9월이 된다고 해도 재가동을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로 3년을 끌고 있다. 4호기와 함께 핵 발전 기술 국산화 초기 단계에 처음으로 한국이 주도해 지은 첫 번째 발전소라고 자랑하는 3호기도 2018년 5월 11일 시작된 계획 예방 정비로 운전이 멈춘 상태

기고

생일과 구로지일(劬勞之日)



황옥주
광주수필문학회 회장

전해지기 전부터 써 왔던 것 같다. 사전에서는 낱아 주신 어머니의 은덕을 구로지은(劬勞之因)이라고, 그 은덕을 생각하는 마음을 구로지감(劬勞之感)이라 한다. 자식이 생을 얻게 된 것은 자기의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어머니의 구로지덕인 것이다.

내 ‘구로일’은 음력 12월 19일이다. 새해로 바뀌기 불과 10여 일 전이다. 지난 해에는 하필 서울에서 수필작가회 행사가 있는 날이라 여느 때보다 일찍 일어났다. 거실로 나오자 “생일 축하합니다”라며 아내가 손을 잡아 준다. “삼백예순다섯 날 중, 딱 한 번 있는 날”이라고. 설마 하니 두 번 있는 날도 있을까만 묘한 감동에 코끝이 시큰했다. 티격태격하기 50년 이 넘은 세월인데 언제 그런 일도 있었느냐는 듯 가슴에서는 철없는 꽃이 피었다. 촛불을 밝혀 놓은 식탁, 감나는 미역국 곁에는 “생일 축하합니다. 올해 건강 티켓입니다”라고 적힌 하얀 봉투가 놓여있다. 안에는 사임당의 얼굴 사진이 찍힌 지폐 몇 장이 들어 있었을 거고.

서울행 7시 버스가 마음에 걸렸지만 나는 선뜻 수저를 들지 못했다. 생일 축하라는 아내의 말과 티켓의 메시지에 감동해서가 아니다. 봉투 속에 들어있을 지

폐 몇 장에 감격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눈앞을 스치고 간 희미한 안개 때문이었다.

그렇게 자식을 낳아주신 어머니의 구로는 계산으로 따질 수 없다. 진부한 말로 하늘보다 높은 은혜다. 값고 값아도 죽을 때까지 빛일 터에 오히려 자녀들의 생일, 손자들의 생일이라고 구겨진 주머닛만져 털어 내는 우리의 어머니들! 삶은 갈수록 좋아져 가는데 어쩌다가 죽는 때를 생일을 주신 어머니! 흰 구름 제 맘대로 오가는 청산마루, 어머니의 유택을 찾아가 차가운 혼유석(魂遊石) 위에 소주 한 잔 올리는 것이 효가 될까? 그것도 종이 잔에.

소소백발(昭昭白髮)이 싫다고 검은 머리 위장이나 열심히 그린 나를, 아내의 해마다 생일 축하라는 말로 부끄러움을 준다. 세상살이는 일취지몽(一炊之夢), 부귀영화가 덧없는 것. ‘구로지일’이면 더욱 어머니 생각에 잠만 서럽다.

적으로 이용될 수 있겠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다. 미중유의 사태라면 조심하면서 평소대로 생활하면 된다. 주변을 소독하고,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자주 씻고, 물을 많이 먹자. 차분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두려워하되 멀리하자.” ‘두려워하자’는 말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대처하자는 말이다. ‘멀리하자’는 말은 우리의 일상이 무너질 정도로 그것에 의해 동요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다. 평상심이 필요하다. 문제가 목전에 다가왔을 때, 평소 심을 잃으면 해결되기가 쉽지 않다.

이번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는 알 수 없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정답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극복될 것이고 극복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의료인들의 도움을 받아 방역과 치료에 도움이 될 일들을 찾아 실행해야 된다. 종교인들은 전염성 질병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단체행동을 자제하고 선교 전력을 다른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급선무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다음의 행동 요령은 찾아가지 마련이다.

제발 코로나의 정치학은 잠시 접어두자. 지금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여기저기 이래저래 엮지 않기를 바란다.

다.

이 두 기의 격납 건물에서 발견된 공극은 3호기 124개, 4호기 121개다. 지금까지 찾아낸 모든 핵발전소 공극의 82%를 넘고 있고 지금도 계속 발견되고 있다. 작년 5월에 있었던 한빛 1호기의 열출력 급증 사고는 체르노빌과 같은 끔찍한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였지만 아직 도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도 못했고 그 후 안전 점검을 했던 제어봉은 기능을 다시 시작하자마자 추락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그리고 3월 6일 또 다시 1호기에서 저압 급수 가열기의 튜브 누설 증상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여전히 한빛 1호기는 가동 중이다.

후쿠시마 핵 사고는 사고가 있기 전부터 그 위험 가능성 경고했지만, 무시되었다. 그리고 대응은 매우 무지했으며, 시행착오에 대한 고통은 국민들과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왔다. 핵 사고의 여파는 체르노빌, 후쿠시마를 보더라도 결코 돌이킬 수 없다. 슬프게도 26개의 핵발전소가 있는 우리나라도 그리 다르지 않다. 하루 빨리 에너지 전환을 통한 핵발전의 위험성을 줄여야 한다. 단순한 위험이 아닌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루 빨리 실행해야 한다.

열 자식을 낳으신 어머니는 저승의 문고리를 열 번이나 붙들고 빌었으리라.

그렇게 자식을 낳아주신 어머니의 구로는 계산으로 따질 수 없다. 진부한 말로 하늘보다 높은 은혜다. 값고 값아도 죽을 때까지 빛일 터에 오히려 자녀들의 생일, 손자들의 생일이라고 구겨진 주머닛만져 털어 내는 우리의 어머니들! 삶은 갈수록 좋아져 가는데 어쩌다가 죽는 때를 생일을 주신 어머니! 흰 구름 제 맘대로 오가는 청산마루, 어머니의 유택을 찾아가 차가운 혼유석(魂遊石) 위에 소주 한 잔 올리는 것이 효가 될까? 그것도 종이 잔에.

소소백발(昭昭白髮)이 싫다고 검은 머리 위장이나 열심히 그린 나를, 아내의 해마다 생일 축하라는 말로 부끄러움을 준다. 세상살이는 일취지몽(一炊之夢), 부귀영화가 덧없는 것. ‘구로지일’이면 더욱 어머니 생각에 잠만 서럽다.

社說

비상 상황 속 ‘집합 예배’ 꼭 해야만 하나

광주에서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15명(9명 격리 치료, 3명 퇴원 후 자가 격리, 3명 격리 해제)으로 늘었다. 특히 최근 확진자 두 명은 광주 세 번째 확진자인 신천지교회 전도사 A씨와 밀접 접촉해 자가 격리됐다 해체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러한 사태가 아니더라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종교 집회 자체를 요청하고 있다. 광주시도 일요일인 지난 8일 관내 1451개 교회를 대상으로 집합 예배 자제를 간곡히 요청했다. 이용섭 시장 등 공무원 2500여 명은 ‘오늘은 가정 예배를 부탁합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두르며 방역과 치료에 도움이 될 일들을 찾아 실행해야 된다. 종교인들은 전염성 질병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단체행동을 자제하고 선교 전력을 다른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급선무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다음의 행동 요령은 찾아가지 마련이다.

제발 코로나의 정치학은 잠시 접어두자. 지금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여기저기 이래저래 엮지 않기를 바란다.

맞 올린 코로나 극복 전국 첫 민관협의회

광주시와 의료계가 코로나19의 조기 극복을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전문 의료인을 전진 배치해 감염병 공동 대책위를 꾸린 것이다.

옛그제 출범한 ‘코로나19 대응 광주시민관 공동대책위원회’는 광주시, 광주시의회, 광주시병원협회, 빛고를 전남대병원, 전남대 의대, 조선대 의대, 대한간호협회 광주시지회의 관계자 14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용섭 광주시장과 양동호 광주시사회장, 이삼용 광주시 병원 협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점이 눈에 띈다. 기존 광주시 주도의 행정 위주 방역 시스템에 전문성을 갖춘 의료진들이 참여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완한 것이다.

대책위는 앞으로 코로나 발생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 사회 감염과 환자 급증 등 단계별 상황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확진자 및 접촉자 발생 추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기능도 탄력

無等鼓	
<p>뒤안의 고매(古梅)에 붉은 꽃망울이 점점이 맺혀 있다. 집을 에워싼 대숲은 꽃과 대조적으로 초록 빛깔이다. 마당에 선 소년은 대나무를 쪼개 만든 흙통을 타고 바위로 떨어지는 물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다. 맑은 물소리, 바람 소리도 들리는 듯하다. 목운(木雲) 오견규(74) 화백의 수묵담채화 ‘개울물 소리를 듣다’라는 그림 속 풍경이다.</p> <p>작가는 화제(畫題)로 쓴 ‘연통분간성(連通分間聲)’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대나무를 쪼갠 뒤 통을 연결해서 산골물소리를 나눈다는 말이예요. 집 뒤로 산골 물이 흘러요.</p> <p>(대나무로 연결해서) 자기 집 마당에서도 그 소리를 듣는 거지요. 이거는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는 말이예요. 결론적으로 작가의 욕망이고 내면의 세계입니다.”</p> <p>퇴계이항(1501-1570)은 유독 매화를 사랑했다. 평생 남긴 매화 시가 107수에 달한다. 그는 밤늦도록 매화나무 가지 끝에 달이 떠오르는 모습을 지켜본 후 남치는 정감을 시로 읊었다. “...밤 깊도록 오래 앉아 완전히 일어나길 잊었는데(夜沈坐久漸忘起)/ 향기는 옷에 가득하고 꽃</p>	<p>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감염병 전담병원 확대, 생활치료센터 추가 확보, 자치구 선별진료소 기능 강화 등이 그것이다.</p> <p>그동안 지역 의료계에서는 코로나 대응이 전문가의 영역이어서 행정 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감염병이 확산하면 의료 전문가들은 과도할 정도의 대처를 주문하고, 행정 관료들은 현실적인 대응을 고수하는 등 의견 차가 크게 벌어져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광주일보가 전문 의료 인력을 중심으로 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수차례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p> <p>이번 민관 협의체 구성으로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가 방역 행정에 즉각 반영되면 집단 감염 등에 대처하는 능력이 훨씬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과 전문 의료인이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 협력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방역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p>
매화를 보다	
<p>까지)은 ‘죽청매수(竹淸梅澗-대숲 맑고 매화 야위다’를 제목으로 광주시 동구 예술의 거리 무등갤러리에서, 문봉선 작가전(4월 30일까지)은 ‘소영암향(瑤峯瑤香)-달빛 아래 매화 향기’를 제목으로 서구 무각사 내 로터스 갤러리에서 각각 열리고 있다. 같은 매화를 소재로 했지만 표현 기법이 달라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느낌을 안겨 준다. ‘코로나 19’의 확산을 우려해 모두들 마스크를 꼭 착용하길 당부하며 마음에 ‘심포’를 찍으면 어떤 까 싶다. /송기문 문화2부장 song@</p>	
<p style="text-align: center;">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p>	